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든든히 서 가는 교회된다.

(행9:31)

부제 :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43:19)

##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3년 3월 1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 설교]

본문 : 계2:18~29

제목 : 주님이 보낸 붉은 편지-헤아려 순종하는 교회 (6)

“ 다만 굳게 잡으라 ”

말씀 :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2:24-25)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 람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괴로움을 끼치는 사악한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따입니다. 왜 이 죄가 사악한 죄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에 위배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이브를 만들고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人間)의 한자어 풀이는 사람 인(人)+사이 간(間)입니다.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인간입니다. 사이 좋게 놀라란 의미는 서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존재적인 의미를 느끼고 보람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왕따 시키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왕따란? 집단에서 특정 개인을 따돌리는 일, 또는 그 대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단에서 파문, 내어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사회적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보낸 계시의 붉은 편지는 에베소를 거쳐 북쪽으로 향해 서머나, 버가모로 가다가 버가모에서 방향을 틀어 남쪽에 있는 두아디라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위치한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큰 유적지도 별로 없습니다. 이곳도 다른 소아시아 지역처럼 우상숭배가 만연된 곳입니다. 모든 신들의 기원이라는 태양신 아폴로 신을 섬겼고,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르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특히 삼바테라는 여승이 점을 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동서의 상인들이 오가는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조건으로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염색 공업과 모직 공업이 성행하여 유명해졌습니다.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가죽 제품, 도자기 제조업과 제빵업자 및, 청동 제품을 취급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과 공업이 발달

되면서 광대한 무역조합, 노동조합(trade guild)이 널리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각종 조합이 두아디라 전역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 당시 사회, 경제 및 종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노동조합마다 그 자체의 수호신이 있었고 계절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조합의 규칙은 조합원이 되면 공동으로 식사하고 회식하며 신전에 술을 바치는 헌주, 물질을 바치는 헌납 행위 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업이나 무역을 하려면 그리고 직장을 구하려면 이 조합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일감을 주지 않습니다. 조합을 통하지 않고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은행업무도 힘들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일감을 주지 않고 가입을 한 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가입하지 않은 자들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은 정말 시대가 변해도 동일합니다.

이런 두아디라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길드에 가입을 하면 신전을 섬겨야 하는데 참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따를 당하는 것이 괴로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교우들입니다. 교회는 이 두 부류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네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아디라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4절, 버가모 교회에게는 6절, 사데 교회도 6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9절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무려 12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가장 미미한 도시에 세워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편지의 내용은 깁니다. 편지가 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본문 18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

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은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같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다 아십니다. 감찰 것이 없습니다. 다 들어납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발은 원수를 파괴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주석이 발강게 달아서 빛난다는 것은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할 것이 말해줍니다. 계19:15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면서 그 발로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거부하던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살인을 일삼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다 심판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곳 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밝히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주님은 두아디라교회에게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이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정확한 의미는 "나는 네 행위들(복수) 즉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그리고 너의 나중 행위들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엇에 대하여 칭찬 하시는 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교회가 처음행위들이 많아 진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섬김(디아코니아)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봉사를 교회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섬김은 구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내도 잘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곳에서 참 신

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아디라교회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아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 보다 교회의 일에 직분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구제를 하는 모습이 처음보다 많아졌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책보면 압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가 많아졌는지요? 교회의 봉사하는 일들이 구제하는 일들이 처음보다 많아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지요?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교회의 이런 믿음을 칭찬한 주님은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은 간단한데 책망의 말이 너무 깁니다. 무려 4줄에 걸쳐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핵심 말씀은 20절입니다. "20,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따라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 근본 뿌리가 가짜라는 말입니다. 분별없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납할 것이 있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 거짓 사상입니다.

이 여자 이세벨의 정체와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사상을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기원전 약 1000년 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이방 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살해하여 시돈의 왕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아스다롯>은 <페니키아 지방의 아주 아름다운 미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사상은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도덕과 종교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종교와 도덕적인 생활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경건을 빙자하여 지독한 성적 부도덕까지 저질렀습니다. 술 취하고 여성들을 동반해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창기까지 동행해서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을 부추겼습니다. 창녀가 여제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섬기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약 3000년이 지난 1세기에 이 이세벨의 사상을 추구하는 여자가 초대교회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행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술 취하고 여성들을 동반해서 춤을 추게 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음행을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도덕적인 생활은 별개의 것이라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드에 가입하여 여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여하여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함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그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잘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 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병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케 한 이세벨과 아합의 자녀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 한 자녀들은 그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자녀가 복수형)을 말합니다. 이세벨을 따르던 제사장들 850명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심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세벨 같은 사탄은 아름답고도 교묘한 고도의 술책으로 우리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실 거야, 다들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데 나 혼자 진실을 지키면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냐,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세속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같다고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왜 기독교는 생각이 옹졸하나 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을 용납하는 것을 주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미의 여신을 섬기면서 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보다 외적인 미의 추구에 빠져서 교묘하게 타협하는 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이세벨의 이름은 순결 고귀함입니다. 겉으로 그럴 사한 이름으로 유혹을 하는 존재입니다. 돈과 마약과 성과 권력 등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에 혼합이 되어 있으면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제 후배 목사가 카톡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영상 JMS 포교 활동)

이렇게 강한 책망의 말을 하신 주님은 두아디라교인 중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다시 부드러운 어투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를 강하게 책망을 하면서도 그의 좋은 점을 들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24-25절입니다.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더 이상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다만 한 가지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굳게 꼭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추종자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올 테니 그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아디라교회에게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권면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로 말합니다. 저는 헤아려 순종하는 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과 더하여 내 일을 지키는 그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악한 자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복을 말하십니다. 주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철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

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 영원히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별은 어둠이 지나가는 사인입니다. 이기면 그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광명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행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또한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처음 금성교회 때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전 보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주춤했지만 다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이쯤 그리고 봄이 온 이 계절에 우리의 사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탄이, 이세벨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하여 유혹을 하는 시대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속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다만 굳게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기셔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얻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셔서 새벽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